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 교육 방향 탐색

—노자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김도남*

<차 례>

- I. 서언
- II.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구조
- III.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교육 방향
- IV. 결언

I. 서언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앎과 삶**을 변증법적으로 풀어낸다. 「도덕경」은 앎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논하면서 **앎은 그릇된 앎을 덜어 내어 완성되고**,¹⁾ **삶은 앎의 실행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설명한다.**²⁾ 앎의 완성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donamsi@kice.re.kr)

- 1)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取天下 常以無事 及其有事 不足以取天下.(48장) 배우는 것은 날로 더하는 것이요, 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덜어 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서 하는 일이 없게 되면,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없게 된다. 언제나 일없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니, 일거리를 만들어 내면 천하를 다스리기 어렵다.(임채우 역, 2008 : 221)
- 2)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其復. 夫物芸芸, 各歸其根. 歸根曰靜, 靜曰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全), 王(全)乃天, 天乃道, 道乃久, 歿身不殆.(16장) 완전히 비우고, 아주 조용함을 지켜라. 만물이 다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되돌아감을 보나니 저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기 그 뿌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사물의 이치 터득을 통해 만물에 고정된 원칙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의 확대로 이루어지고,³⁾ 삶의 완성은 세상의 변화하는 원리에 따르는 자아를 확립하여 삶을 개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⁴⁾ 「도덕경」의 논리에 따라 독서를 보면, 독서는 만물의 근원적 원리를 깨치는 방법이고, 삶을 완성하는 도대이다. 책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깨치고, 깨진 이치에 따라 만물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독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책을 통하여 대상의 이치를 깨치게 한다. 한 가지 책은 한 대상의 이치를 알려준다. 한 가지 이치의 깨침은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損) 마음에 빈 공간(虛)을 만든다. 독자는 이 빈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이 여유는 다시 책을 읽어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더 큰 여유 공간을 만든다.⁵⁾ 이치의 깨침

근원으로 돌아가면 교묘해지니 이를 일러 명(明)을 회복한다고 하고, 명을 회복하면 영원하게 되며 영원함을 알면 밝다고 하니, 영원함을 알지 못하면 망명되게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영원함을 알면 통하게 되니, 통하면 공정하게 되고, 공정하면 왕이 되고, 왕이 되면 하늘과 같게 되고, 하늘과 같으면 도를 얻게 되며, 도를 얻으면 오래갈 수 있으니, 평생 위태롭지 않게 된다.(임채우 역, 2008 : 94)

3)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故常無欲以觀其妙，常有欲以觀其微。此兩者同，出而異名。同謂之玄，玄之又玄，衆妙之門。(1장) 도가 말해 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하다고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로다. (최진석, 2001 : 21) 反者，道之動，弱者，道之用。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40장)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유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니, 세상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임채우, 2008 : 186)

4) 爲無爲，事無事，味無味。大小多少，報怨以德。圖難於其易，爲大於其細。天下難事，必作於易，天下大事，必作於細，是以聖人終不爲大，故能成其大。夫輕諾必寡信，多易必多難，是以聖人猶難之。故終無難矣。(63장) 무위의 방식을 행하며 일거리를 없애는 태도로 일을 하고, 정해진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적은 것을 많게 보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하고, 큰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끝내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큰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진석, 2001 : 453)

5) 노자는 48장에서 '도를 익히는 것은 덜어 내고 또 덜어 내는 것'[爲道日損 損之又損之]으

은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더 큰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독서는 마음속의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는 활동이다.

노자의 관점에서 볼 때 책을 읽고 새로운 이치를 깨치는 것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생각을 덜어 내는 것이다. 책을 읽고 한 가지 이치를 깨칠 때마다 한 가지 아집(我執)을 덜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덜어냄을 통하여 큰 이치를 깨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앎의 활동인 것이다. 노자는 무지(無知)를 말하지 않지만 무위(無爲)에서 유추하여 보면, 무지(無知)는 그릇되게 아는 것이 없음이다.⁶⁾ 독서의 관점에서 보면 책을 읽어 그릇된 지식을 모두 버린 것이 무지이다. 무지(無知)는 무부지(無不知)로 알지 못함이 없는 것과 상통한다. 모든 그릇된 지식을 버린 것이 무지이고, 그릇된 지식을 모두 버리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앎은 삶을 이끌어간다. 독자는 책 한 권을 읽어 하나의 이치를 깨친 만큼의 지혜를 갖게 된다. 독자는 깨친 그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책을 읽어 많은 이치를 깨쳤다면 깨친 만큼의 지혜를 갖는다. 그 독자는 지혜를 가진 만큼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노자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무위(無爲)라고 하였다. 무위는 그릇된 행위를 하거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행위가 바르게 되기에, 무위(無爲)는 무불위(無不爲)와 같다고 한다.⁷⁾ 무불위는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 속뜻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道)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⁸⁾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독서는 무지(無知)를 이루고, 무위(無爲)를 추구하

로 말하고(각주 1 참조), 5장에서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虛而不屈, 動而愈出](최진석, 2002 : 65)이라고 말한다.

- 6) 知不知上, 不知知病.(71장) 세상 사람이 무지(無知)의 경지를 안다면 최상의 사람이고, 모르면서 억지로 안다하거나 허망한 마음으로 잘못 안다 하면 병통이다.(송찬우 역, 2000 : 224)
- 7) 道常無爲而無不爲.(37장)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최진석, 2002 : 299)
- 8)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25장)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최진석, 2002 : 215)

는 행위이다. 이는 독자가 스스로 그러한(自然) 삶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독자가 무위적 읽기를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삶은 ‘온삶(溫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읽어 온전한 삶을 이루려는 생각은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다. 우리는 노자가 말하는 방법으로 읽기를 바라고, 읽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 방법의 읽기를 해보라고 권유해 볼 수 있다. 읽기를 강조하고, 읽기를 권장하는 것은 읽기를 통하여 삶을 얻고 온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자의 인식 논리에 따른 읽기 논의는 낮설고,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읽기나 읽기 교육에 대한 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논의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을 통하여 밝힌 인식 논리를 읽기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통하여 무위적 읽기 원리를 밝혀 읽기 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위적 읽기에 대한 접근은 읽기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이고, 새로운 읽기 교육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읽기와 읽기 교육 탐구의 장을 넓히고, 읽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다. 모든 읽기 교육의 관점이 완전하지 않듯, 무위적 읽기 관점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논의를 통하여 읽기를 온삶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읽기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9) ‘온삶’은 장희익(2001)의 ‘온생명’에 대한 논의의 도움을 받았다. 장희익은 온생명을 ‘기본적인 자유 에너지의 근원과 이를 활용할 물리적 여건을 확보한 가운데 이의 흐름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227쪽)로 정의하면서 ‘지구상에 나타난 전체 생명 현상을 하나하나의 개별적 생명체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전일적 실체(180쪽)’라고 말한다. 즉, 온생명은 지구상의 생명 현상 일체를 이르는 말이다. 온삶은 온생명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인 개인이 온생명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구조

이 장에서는 「도덕경」의 인식 논리를 토대로 온삶을 위한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의 틀을 알아본다. 먼저 「도덕경」에 나타난 노자의 인식 논리 구조를 살펴보고, 이 논리를 온삶의 논리 구조로 바꾸어 본다. 그리고 온삶의 논리 구조를 토대로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구조를 밝혀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의 접근 논리를 세워본다.

1.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

「도덕경」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구성하여 인식하는 세계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그 세계를 토대로 존재하고,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각하기는 쉽지만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가 아닌 오묘한 원리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는 그 세상을 깊이 통찰하고 난 후, ‘심원하고 또 심원하다’(玄之又玄(1장))라고 했다.

노자는 이 심원한 세계를 「도덕경」의 첫 장에서 도(道)와 명(名)으로 구분한다.¹⁰⁾ 도(道)는 세상 속 대상¹¹⁾의 존재 이치이고, 명(名)은 그 이치의 작용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하여 규정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대상들의 인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 준다. 세계는 인식자가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인식 대상은 인식자의 바깥에 있고, 인식 결과는 인식자의 안쪽에 있다는 존재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이 첫 장에서 노자는 대상과 이치와의 관계를 밝혀 드러내면서 ‘심원하다’고 말한다.

10)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1장(각주 3 참조))

11) 대상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것과 구분되어 인식되는 단위 인식체이다.

노자는 대상을 단지 객관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대상은 끊임없이 인식자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노자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하고, 대상이 대상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명(命: 이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¹²⁾ 그리고 대상이 대상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자의 배려와 배품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자는 대상에 내재된 본질을 도(道)라고 하고,¹³⁾ 인식자의 배려와 배품을 덕(德)이라고 한다.¹⁴⁾

노자는 도를 알고 덕을 배품기 위한 조건으로 이치를 탐구하여 깨치고, 마음을 비울 것을 강조한다. 도를 깨치는 것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모두 인식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도를 깨치는 것은 아집을 버리고, 욕심을 덜어 내 마음을 비움으로써 이루어진다. 노자는 아집을 버리는 기제로 허정(虛靜)을 말하고,¹⁵⁾ 욕심을 덜어 내는 기제로 손충(損沖)¹⁶⁾을 말한다. 허정은 아집을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손충은 욕심을 덜어서 마음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허정은 세상의 이치를 깨지도록 하는 방편이고, 손충은 수용하고, 낮추고 물러서는 방편이다.

허정(虛靜)의 허(虛)에는 대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 살피고 따지고 생각하여 대상 속에 존재하는 이치를 탐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12) 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復。夫物芸芸，各復歸其根。歸根曰靜，是謂復命。(16장)(각주 2 참조)

13) 有物混成，先天地生，寂兮寥兮，獨立不改，周行而不殆，可以爲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強爲之名曰大。(25장) 혼돈 속에 생성된 것이 있어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으니, 고요하고 텅 빈 채, 우뚝 서서 변하지 않으며, 두루 행하여 멈추지 않아서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 일부러 자(字)를 붙여 도(道)라고 하고, 역지로 이름을 지어 대(大)라고 한다.(임채우, 2008 : 127)

14)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본받아서 덕을 배품는 것으로 보고, 자연의 이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生之畜之，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10장) 낳아주고, 길러주며 날지만 소유하지 않고, 일을 하지만 뽐내지 않으며, 길러주지만 부리지 않는 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임채우 역, 2008 : 75) 孔德之容，惟道是從。(20장) 큰 덕의 모습은 도만을 따른다.(임채우 역, 2008 : 113)

15) 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復。(16장) (각주 2 참조)

16) 損之又損，以至於無爲。(48장) 덜어 내고 덜어 내면 무위에 이른다. 道沖而用之 或不盈(4장) 도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그래서 허(虛)는 인식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앎을 버려 마음의 비움이다. 그릇된 앎에 대한 집착을 하나 버리면 버린 만큼의 빈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릇된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靜)은 고요함을 말하는데 마음을 안정하고, 성찰하여 집착이 없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함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정(靜)은 바른 앎을 이루게 한다.¹⁷⁾ 그래서 비움의 끝에 이르고(致虛) 고요함의 끝에 이르면(致靜) 만물의 이치를 모두 알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손충(損)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얻은 것이다. 손(損)은 사물의 이치를 깨쳐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허황된 욕심을 덜어 내는 것이다. 충(沖)은 욕심이 없어진 마음의 공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을 정리하여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면 쓸모가 많아진다. 남에게 겸손하고, 베풀고, 받아 주게 된다. 그래서 욕심을 끝까지 덜어 내면(極損) 사욕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을 끝까지 비우게 되면(極沖)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¹⁸⁾

마음의 허정을 지극(至極)히 하면 무위에 이르고, 손충을 지극히 하면 무위에 이른다. 무지는 그릇되게 아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릇된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마음속에는 바른 앎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즉, 완전한 앎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위는 일을 힘들이거나 어렵게 하지 않음을 말한다. 즉, 일을 할 때 큰 힘을 쓰지 않고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 힘을 쓰고 어렵게 하는 것은 강제적이며 이치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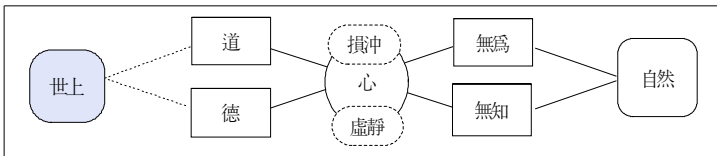
17) 蹶勝寒，靜勝熱，清靜爲天下正。(45장) 움직임은 한기를 이기고, 고요함은 열기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은 천하의 올바른 것이다.(최진석, 2002 : 355)

18) 知其雄，守其雌，爲天下韜，爲天下韜。常德不離，復歸於 兒。知其白，守其黑，爲天下式。爲天下式，常德不，復歸於無極。知其榮，守其辱，爲天下谷。爲天下谷，常德乃足，復歸於樸，樸散則爲器。聖人用之，則爲官長。故大制不割。(28장) 남성다움을 알지만 여성다움을 지키면서 세상의 계곡이 되니, 세상의 계곡처럼 되면 영원한 덕이 떠나지 않으며 어린아이로 되 돌아간다. 그 밝은 것을 알되 그 어두운 것을 지키니 천하의 표준이 되니, 천하의 표준이 되면 영원한 덕이 어긋나지 않으며, 무궁한 세계로 복귀한다. 그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그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언제나 덕이 넉넉하며 다시 질박함으로 되 돌아간다. 질박한 통나무가 깨져서 그릇이 되나니, 성인이 이를 이용하여 군왕이 된다. 그러므로 큰 재단은 자르지 않고 짓는다.(임채우, 2008 : 140)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게 되면 하는 것이 없지만(無爲) 하지 않는 것이 없는(無不爲)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自然)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함은 대상의 이치와 마음의 이치가 하나가 되어 생각의 그릇됨이나 행동의 어긋남이 없어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도에 따라 덕을 베풀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본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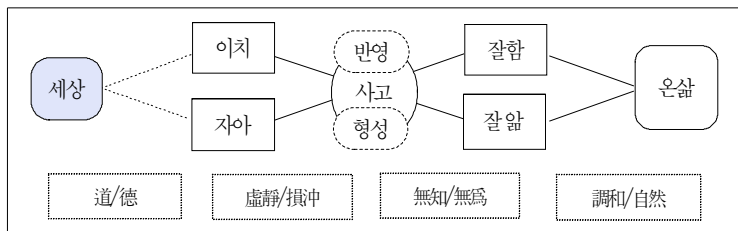


[그림 1]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

2. 온삶의 논리 구조

노자가 「도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온삶’이라 할 수 있다. 온삶은 힘들이지 않고 바라는 것을 이루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온’은 ‘온전한’, ‘꼭 참’을 의미한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원래 그대로를 가리킨다. 그래서 온삶이라는 것은 온전하여 가치 있고 흠족한 삶을 말한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흠족하다는 것은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삶을 바라고 있다. 온삶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자는 늘 마음을 다잡으며 사는 것을 강조한다.

「도덕경」에 나타난 노자의 인식 논리를 빌려 온삶의 논리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온삶의 논리 구조

노자는 인식의 근본 조건을 도와 덕으로 나누었다. 도는 인식자의 외부에 있는 대상의 본질 속성이고, 덕은 인식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배움이다. 노자의 도(道)¹⁹⁾를 구체화된 말로 바꾸면 ‘이치(理致)’와 가깝고, 덕(德)은 남에게 베푸는 인성의 본질 즉, ‘자아(自我)’로 볼 수 있다. 사람은 삶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 관계에서 외부 대상과 대비 되는 인식자의 속성이 자아인 것이다.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외부 대상은 단순히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지각되고 인식되어 자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은 사람이 그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자아를 드러내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치는 대상을 이루거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 속성이다. 사람이 대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깨쳐야 할 대상의 본성인 것이다. 이치는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상을 탐구하여 밝혀 드러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대상의 이치를 밝혀 이해함으로써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즉 사람들이 대상을 알게 됨으로써 대상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치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한 사람의 본성과 한 가족의 본성이 다른 것과 같다.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갖는 인식자의 내부 존재가

19) 노자의 도(道)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① ‘도’체의 묘사, ② 규율성의 ‘도’, ③ 생활 준칙으로서의 ‘도’ 등의 뜻이 있다.(최재묵, 박종연 역, 2008 : 19~28) 이 논의에서는 도(道)의 의미를 사람이 사물과 만물이 본질적 속성을 탐구하여 밝힌 것의 의미로 제한하여 ‘이치’라고 명명한다.

‘자아’이다. 자아는 사람이 대상과의 관계를 할 때, 관계를 하고 있음을 알고, 그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존재이다. 자아는 인식자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구별되는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드러난다. 인식자가 대상과 자기의 다른 점을 느껴 자기의 존재적 특성을 밝혀내 규명한 것이 자아이다. 이 자아는 인식자가 대상과 관계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존재감과 같은 것이다. 자아는 노자가 말하는 덕의 실현을 이루어내게 하는 존재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 자아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주재하고, 일을 주도해 갈 때에는 ‘주체’²⁰⁾가 된다.

사람은 삶에서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면서 자아의 존재를 인식한다. 자아를 인식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대상의 이치를 밝혀 이해하고, 자아를 확대하여 규명하려고 한다. 대상의 이치를 밝혀 알고, 자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치와 자아를 밝히는 일은 행위가 수반되는 일이기에 주체가 하게 된다. 주체는 마음의 의식 활동을 주관하는 행위자이다. 이 주체는 자아의 상대인 대상의 이치를 찾고, 그 이치들을 통하여 자아를 분명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주체는 이 활동을 통하여 이치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자아도 규명하게 된다. 주체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사고’라고 부를 수 있다.

주체가 이치를 밝혀서 알고, 자아를 규명하는 일은 사고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치와 자아를 밝히는 사고의 작용을 노자는 허정(虛靜)과 손충(損沖)이라 했지만 이를 교육적인 말로 바꾸면 반영(reflection)과 형성(becoming)²¹⁾이라고 할 수 있다. 반영은 이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지식과 지

20) 주체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의식 활동의 주관자이다.(김도남, 2008 : 297)

21) 반영(reflection)과 형성(becoming)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에서 반영(reflection)의 경우는 숙고, 반사, 이중반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형성(becoming)은 생성, 전성(轉成: 바뀌어 다른 것이 됨), 전화(轉化: 다른 것으로 바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들 두 용어는 만하이머(Manheimer)의 키에르케고르의 교육론 논의를(이홍우, 임병덕 역, 2003) 참조한 것이다. 사고 작용으로서의 반영은 자아의 외부에 있는 이치를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사고(학습)의 원리로 ‘이중반사’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형성(becoming)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현재 능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혜를 확충하는 방법이고, 형성은 대상의 이치와 마주하여 이치를 깨치고, 자아를 밝히는 방법이다. 반영은 이중반사라고도 하는데 대상의 이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파악되는 것이 1차 반사이고, 다시 마음속에서 재 해석되고 규명되어 의식의 한 부분으로 되는 것이 2차 반사이다. 이 두 가지 반사를 이중반사라고 한다(임병덕, 1995). 우리가 이치를 탐구하여 이해하는 이중반사의 원리가 반영인 것이다. 노자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을 깊게 지키면 이치를 알 수 있다는 말의 실제적 방법이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형성은 소크라테스가 소년에게 시도했던 대화(산과술)로 기하(幾何)의 원리를 알게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기하에 대하여 소년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질문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소년에게 깨우쳐 준다.²²⁾ 소크라테스의 이 행위는 소년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하에 대한 잠재적 인식력을 일깨워 줌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이는 소년에게 기하를 아는 자아를 형성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 노자는 손충(損沖)을 그릇이나 건축물의 공간, 수레바퀴의 구멍의 존재 가치를 파악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치라고 말한다.²³⁾ 형성은 손충(損沖)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다. 대상의 빈 공간을 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외부의 도움으로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반영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형성으로 자아를 밝혀내는 목적은 잘 알고, 잘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안다는 것은 아집과 그릇됨이 적은 것이고, 잘 한다는 것은 이치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배우려는 욕망을

22) 소크라테스와 소년과의 대화 내용과 그 교육적 의미는 이홍우(2010 : 241~247)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23) 三十輻共一，當其無，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11장) 삼십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곡에 모이는데 그 텅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 그릇의 기능이 있게 된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유는 이로움을 내주고 무는 기능을 하게 한다.(최진석, 2002 : 91)

가지는 것은 잘 알아서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노자가 무지와 무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고 잘하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지는 이치를 잘 아는 것이고, 무위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 잘 앎과 잘함의 조건은 이치의 이해와 자아의 규명이다. 잘 앎과 잘함은 하나로 연합하여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한다. 잘 앎과 잘함은 일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드러나게 된다.

일은 삶이며 삶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일을 통하여 대상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온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온삶은 주체가 앎과 삶을 융합하여 이루어낸다. 세상(대상)과 주체가 서로 거슬리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호혜적 관계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주체가 이루고 싶은 바를 모두 이루고, 세상(대상)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삶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스스로 그러하게 사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는 일을 쉽고 완전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일이 경미하고 쉬울 때 한 것은 튼튼하고 완벽하다. 작은 수고로 할 수 있는 일은 대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²⁴⁾ 잠시 마음만 두어도 그 일은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 일은 누가 보아도 잘한 일이 되고, 다시 손을 댈 이유가 없다.²⁵⁾ 또한 작은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세울 필요조차 없어진다. 작은 일을 하고 뽐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서지 않게 된다.²⁶⁾ 그렇지만 나서지 않는다고 남이 몰라주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곧 바로 일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힘듦을 느끼게 되

24) 天下難事，必作於易，天下大事，必作於細，是以聖人終不爲大，故能成其大。(63장)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내 큰일을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진석, 2002 : 53)

25) 善行無穢迹，善言無瑕玷，善數不用籌策，善閉無關楗而不可開，善結無繩約而不可解。(27장) 잘 다니는 이는 흔적이 없고, 잘한 말에는 흠잡을 것이 없고, 잘하는 계산에는 산가지를 쓰지 않고, 잘 닫으면 빗장이 없어도 열 수 없고, 잘 매면 밧줄로 묶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임채우, 2008 : 136)

26) 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宰，是謂元德。(51장) (만물을) 낳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되 주재하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덕이라 한다.(임채우, 2008 : 222)

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감사해 할 수 밖에 없다. 즉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²⁷⁾

독서를 통하여 변화하는 이치를 깨치면 누구나 일을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이 쉽고(易) 작을(細) 때는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일을 쉽게 하기 위한 전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일을 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 지라도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다. 일이 작고 쉬울 때 하게 되면 큰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미리 다 일을 해 두었기에 큰일이 생겨 날 원인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는 일이 없으면서(無爲) 모든 일을 다 하게 되(無不爲)는 것이다.

3. 온삶을 위한 온관념의 구성 구조

온삶을 위한 읽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노자의 「도덕경」에 들어 있다. 「도덕경」에서 책 읽기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조금 결눈질을 하면 독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노자는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無爲自然) 삶을 살기 위하여 탐구하고 사색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앎과 삶을 분리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하고 있다. 독서도 탐구하고, 사색하고, 행동하게 하는 측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에서 읽기의 논리를 유추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오래도록 위태롭지 않게 사는 온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²⁸⁾ 오래 살고, 힘들이지 않고 일하며,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27) 是以聖人常善求人，故無棄人，常善救物。(27장), 이런 이치를 본받아 성인은 정말로 사람을 잘 구제하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물을 잘 구제하였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다.(최진석, 2002 : 231)

28) 知常容，容乃公，公乃王，王乃天，天乃道，道乃久。沒身不殆。(각주 2참조)

말한다. 일을 할 때에는 일이 작고 쉬울 때 하여 큰일이 없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아서 모든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읽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것 중에서 훌륭한 방법이 독서이다. 독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꺾어보지 못한, 내가 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은 훌륭한 스승이다. 독자는 그 책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 노자의 관점에서 읽기를 보면, 읽기는 일차적으로 대상의 이치를 인식하게 해 주고 자아를 발견하게 해 준다. 책은 독자가 접하지 못한 세계의 대상과 그 대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 독자는 책을 읽어 대상과 이치를 인식하면서 그 이치와 마주하고 있는 자아도 함께 발견하게 된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고, 대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치를 분석하고, 탐구하고, 해석하고, 종합한다. 예를 들어, 「도덕경」을 읽는 독자는 노자가 말하는 도와 덕의 세계를 만나고, 도와 덕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다. 그렇게 되면 도와 덕의 이치가 무엇인지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탐구하게 된다. 노자가 말하는 도(道), 상(常), 허(虛), 충(沖), 무위(無爲), 자연(自然) 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석하고, 이들은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를 종합하여 무위자연의 논리를 파악하려 한다. 그래서 그 내적 논리에 수궁이 가면 노자의 무위자연을 재정리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도덕경」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노자가 「도덕경」 81개 장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이치를 독자의 의식체계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도덕경」을 읽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낯선 생각(無爲)을 접하게 되면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자아의 인식은 읽기 주체의 관념과 다른 관념이 대비되어 그 차이가 드러날 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도덕경」을 읽는 주체는 「도덕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관념과 대비되는 관념을 만나게 된다. ‘변화가 보편적 진리이고, 변화에 맞게 무위하여 스

스로 그러함을 이룬다'는 무위(無爲)의 관념을 접하게 된다. 이때 읽기 주체는 이 관념을 통하여 자아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읽기 주체는 자기에게 무위의 관념을 가진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되고, 무위의 관념으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새로운 자아는 읽기 주체가 그 관념과 관련된 자아의식을 떠올리고, 자아를 규명함으로써 발현된다. 또는 읽기 주체가 무위자연의 관념과 관련된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하게 규명되지 못한 자아의 부분을 수정하여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주체의 자아 형성이나 변화는 기존의 문제적 자아를 덜어 내는 것이고, 덜어 낸 큰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탐구를 통하여 이치를 깊이 터득할수록 안목²⁹⁾의 확대를 가져온다. 안목은 세계의 이치를 알아채고, 그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이치의 터득은 대상의 본성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책을 읽고, 교육을 탐구하여 교육의 특성, 교육과정, 학생,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알고, 학교를 방문하여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을 살피게 되면 교육에 대한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을 올바르게 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읽기 주체는 자아를 발현하고, 성찰을 통하여 자아를 확립한다. 자아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변하지 않지만 자극을 받으면 변화한다. 자아는 기존의 인식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면 달라진다. 자아는 세계와 관계된 자기를 밝혀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학생의 자아가 교육 관련 책을 읽고 교육의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교사의 자아로 바뀌는 것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자 자아를 교사의 세계를 인식하여 자아를 교사 자아로 바꾸어 규명하면 교사가 된다. 읽기 주체가 책을 통하여 다른 세계를 인식하여 자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읽기 주체가 어떤 대상을 담고 있는 책을 읽느냐에 따라 발현되는 자아가

29) 안목은 높은 식견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보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흥우(2006 : 54)는 안목을 '현상을 보는 눈 또는 학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기본적 아이디어'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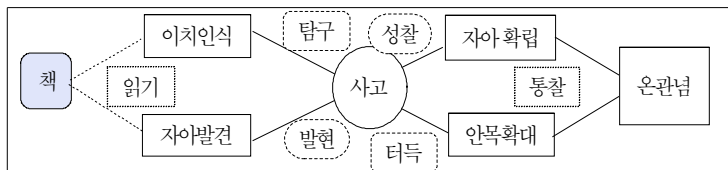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목의 확대와 자아의 확립은 대상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준다. 통찰은 대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체이다. 대상에 대한 통찰은 독자가 책을 통하여 대상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안목은 주체가 대상의 이치를 자아를 바탕으로 타당하게 규정하는 능력이다. 대상에 대한 이치 터득과 자아를 확립하게 되면 주체는 대상에 대한 규정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회에서 전문가는 각 분야에 대하여 확대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문가는 특정 대상을 통찰로 규정하고, 일을 쉽고 온전하게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읽기 주체도 읽기를 통하여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온전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온전한 관념은 대상에 대한 확대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토대로 구성된 ‘온관념’이라 할 수 있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관념이 아니라 독자의 확립된 자아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관념이다. 즉, 읽기 주체의 존재적 토대인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대상의 이치를 재규정한 것이다. 이는 온관념이 확립된 자아에 의하여 결정되며 새롭게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는 읽기 주체가 책을 읽고 자아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온관념을 구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읽기 주체가 자아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읽은 책에서 구성한 관념은 새로운 관념일 수 없고, 온관념일 수 없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고 온관념을 구성함으로써 온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읽기 주체가 구성하는 온관념은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대상에서 비롯된 확립된 자아를 반영한다. 이는 독자가 읽은 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관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책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읽기 주체가 자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구성된 관념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온관념이 읽기 주체가 자아의 변화를 이루어 구성한 관념이라는 것이다. 이런 온관념의 그 내적 속성은 무위적이다. 온삶은 온관념을 토대로 무위를 지향하는 삶이다. 그릇된 삶을 줄이고, 강제로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관념을 기

반으로 하는 것이다. 온삶을 위한 온관념의 구성 구조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온삶을 위한 온관념 구성 구조

읽기 주체가 이 온관념을 대표하고 있을 때를 일컬어 ‘무주관(無主觀)’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主觀)은 주체가 관념을 대표하고 있을 때를 가리킨다. 주체가 구성한 관념의 속성에 따라 주관의 성질도 달라질 수 있다. 온관념의 대표 속성은 ‘무위(無爲)’라고 할 수 있다. 무위의 속성을 지닌 관념을 주체가 대표하고 있을 때를 ‘무위주관’ 또는 ‘무주관’이라 할 수 있는데, 간명하게 일컬어 ‘무주관’이라고 하고자 한다.

무주관은 주관의 없음이 아니라 읽기 주체가 무위적 온관념을 구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무주관은 읽기 주체가 앎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앎과 아집을 버려 구성한 관념이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 기존 앎을 새 앎으로 대체한다. 새로운 앎으로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고, 이로써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체의 관념이 무주관이다. 그러므로 무주관은 늘 새롭게 변화하는 주관이다. 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노자의 관점에서 읽기 주체가 이치를 깨치고 자아를 확립할 때마다 기존의 관념을 새롭게 바꾸어 구성하는 것이 무주관이다.

Ⅲ. 온삶을 위한 관념 구성 교육 방향

온삶을 위한 무위적 관념 구성 교육은 읽기 주체가 확립된 자아와 학

대된 안목으로 온관념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하여 온관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읽기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온삶을 무위적 관념 구성을 위한 읽기 교육적 접근을 ‘무위적 읽기 관의 이해’, ‘이치 터득을 통한 안목 확대’, ‘성찰을 통한 자아 확립’, ‘온관념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무위적 읽기관의 이해

읽기에 대한 논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읽기 관점을 확립하고 그 관점에 따라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읽기 교육에서 읽기 관점이나 읽기관을 강조하지 않았다. 책을 읽으라고만 했지 무엇을 위해 왜 읽어야 하는지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경험상 책이 재미있고, 읽기가 가치 있는 활동이어서 학생들도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면이 있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강조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잘 읽지 않거나 책을 읽어도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온삶을 위한 읽기를 위해서는 먼저 읽기관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가 대상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하여, 온삶을 위한 온관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읽기관의 이해는 독자가 읽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읽기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읽기 행위에 대한 의미 규정이면서 읽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행위이다. 독자는 읽기관을 가짐으로써 읽기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세상과 소통하는 읽기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을 위한 세상 이해를 강조한다.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온삶에 이르게 한다는 신념을 드러낸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알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책은 사람들이 세상 만

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밝혀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책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나면 소통이 가능하지만 알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다. 작은 곤충 한 마리도 알고 나면 별것이 아니지만 모르면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삶의 실천을 요구한다. 책을 읽는 것이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삶의 목적을 삶으로의 실천이라고 강조한다.³⁰⁾ 글을 읽고 이치를 터득한다는 것은 이치에 따른 실천을 위해서이다. 실천은 자아의 실천 의지에서 비롯되는데 의지의 실현은 주체를 드러나게 한다. 읽기를 통하여 확립된 자아가 있으면 주체를 통하여 실천을 이루게 된다. 주체가 무위를 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를 실행할 때 온삶을 이룰 수 있다. 온삶을 위한 읽기에서는 안목을 키우고, 자아를 일으켜 주체가 안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삶의 지혜를 넓혀준다. 이는 책을, 삶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읽을 때 가능해진다. 지혜는 삶을 일에 알맞게 이용하는 것으로 일을 쉽고 완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삶을 삶과 연결시키고, 삶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아의 확립을 통한 읽기 주체와 삶의 주체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삶으로 일을 쉽고 잘하도록 하는 것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읽기 주체가 읽기로 무위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을 익혀 온삶을 위한 온관념을 구성할 때 읽기는 지혜를 얻게 하는 방편이 된다.

읽기가 온삶을 지향하면 읽기 주체는 평생 독자로 변화한다. 독자의 생활은 삶과 삶의 교섭으로 이루어지기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주체가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책을 읽어야 한다. 온삶은 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이치 터득과 자아 확립을 필요로 한다.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기에 읽기 주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관념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체는 늘 책을 읽고, 이에

30) 노자는 「도덕경」 16장(각주 2참조)에서 허정(虛靜)으로 대상의 이치를 깨치고, 이를 토대로 무위적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삶을 살기 위해서 독자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읽기 주체가 온삶을 추구하면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 노자가 말하는 개척은 늘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읽어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털어 내는 일을 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자신은 새롭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자신의 바깥은 새로운 삶을 이루어야 함을 전제한다. 삶의 개척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는 독자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게 만든다.

2. 이치 터득을 통한 안목 확대

흥미나 즐거움을 위한 읽기는 가벼운 읽기지만 안목을 확대하는 읽기는 진지한 읽기이다. 진지한 읽기란 대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읽기이다.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여 안목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 책을 읽는다 해도 평생 천 권을 읽기 어렵다. 세상의 어떤 대상의 이치는 한두 권의 책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상들은 한두 권으로 이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 권을 읽으면 의심이 더 가중되고, 두 권을 읽으면 ‘그런가?’ 하며 반신반의하고, 세 권을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며, 열 권쯤 읽으면 ‘그럴 것 같네.’ 하고 마음을 주고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목을 얻으려는 읽기는 진지한 읽기일 수밖에 없다.

안목은 대상을 충실하게 알 때 생긴다. 읽기 주체가 책을 읽어 대상에 대한 안목을 얻으려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관념을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경」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논하는 여러 책을 읽고, 무위의 논리 구조를 자기의 생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안목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이해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탐구가 필요하다. 탐구는 대상에 대한 책을 종합적으로 읽고,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각 책에서 밝히고 있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체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책은 한 대상에 대하여 설명이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각 책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그 대상의 본질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탐구이다.³¹⁾ 탐구는 독자가 대상의 본질 특성에 집중하여 그 이치를 명확하게 밝혀 인식하는 일이다. 탐구하여 밝힌 이치를 독자의 의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터득이다.

터득은 대상의 이치를 앞으로써 그릇됨을 마음에서 비우는 것이다. 터득의 원리는 반영으로써 대상의 이치를 마음속에 이중으로 반사시켜 독자의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탐구를 통한 과정에서 이치를 밝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의 반사이고, 파악한 이치로 독자의 기존 관념을 덜어 내고 바른 관념을 가지는 것이 이차 반사인 것이다. 이치를 터득하는 논리적 과정은 일차와 이차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과정은 이치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관념을 바꾸기도 한다. 대상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여 터득하게 되면 독자는 대상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안목의 확대를 위한 읽기는 대상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읽기 주체의 관심이 책이 아닌 대상에 있어야 한다. 읽기 주체가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책을 읽게 되고,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읽기는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수의 책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하여 읽게 한다. 이로 인하여 읽기 주체는 대상에 대하여 넓고 깊이 있는 앎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31) 예를 들면, 「도덕경」(道徳經)의 의미에 여러 책이 논의하고 있다. 하상공의 「하상공장구(河上公章句)」(이석명 역, 2007)는 노장사상의 관점에서, 왕필의 「노자주」(임채우 역, 2008)는 중국 전통 철학적 관점에서, 감산대사의 「노자(老子)」(송찬우 역, 2000)는 불교적 관점에서, 진공응의 「노자(老子)」(최재목·박종연, 2008)와 최진석(2002)의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은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김형효(2004)의 「사유하는 도덕경」은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안목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살펴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였을 때 대상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읽기 주체가 대상의 어느 한 쪽 내용만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안목을 가질 수 없다. 노자는 허정(虛靜)을 통하여 그 근본(根)을 보아야 한다³²⁾고 했다. 대상이 지닌 근본적인 속성을 알게 되었을 때 안목을 얻을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안목은 대상의 이치를 읽기 주체가 확연히 이해하였을 때 갖게 된다.

대상을 이해하여 얻은 안목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이다. 안목은 대상을 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본성대로 되도록 돕거나 대상의 본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그 대상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되고 깊이 이해를 하였다면 대상이 본성대로 되도록 하는 책임감과 될 수 있게 하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이 책임감과 신념이 스스로의 자격이다. 예를 들어, 읽기 교육학을 깊이 이해하면 읽기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읽기 교육을 논의하고 학생들이 읽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읽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된다.

3. 성찰을 통한 자아 확립

읽기 주체는 글을 읽고 다른 관념을 만나게 되면 자기 관념과의 차이로 드러나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이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되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규명한 것이 ‘자아’이다. 독자는 책을 읽으

32) 致虛極，守靜篤。萬物竝作，吾以觀其復。夫物芸芸，各歸其根。歸根曰靜，靜曰復命。(16장) 허심하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를 돈독히 지키면, 만물이 병작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나는 본다. 만물은 무성하게 피고 지면서 각각 그 뿌리에 복귀한다. 뿌리에 복귀함을 일컬어 고요함이라 부르고, 그 고요함을 일컬어 자연의 명령을 반복한다고 말한다.(김형효, 2004 : 166)

면서 늘 다른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 때마다 자아를 지각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살아가네.’ 하면서 대상과 자아를 동시에 발견한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이 자아를 쉽게 간과하고 대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읽기 주체는 책을 읽으면서 자아에 관심을 집중하여 자아를 밝히고, 변화시킴으로써 온삶을 지향할 수 있다.

자이는 개별 주체의 고유한 존재성이다. 자이는 우리가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여겨서 규정하고 외부에 규정한대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다. 자아가 고유하다는 말은 자신만의 독특성이라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존재성이라는 것은 주체에게 인식되고 세상에 받아들여짐으로써 규정되는 특성이다. 자이는 주체가 자기에 대하여 내적으로 규명한 것이면서 그 규명이 밖으로 드러나 다른 주체에게 인식되는 특성인 것이다. 읽기 주체는 이 자아를 책의 내용에서 발견하고, 규명하고 변화시켜 확립한다.

자이는 외부의 도움으로 쉽게 드러난다. 자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거나 주체에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 주체가 자기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면 그때 의식에 곧바로 떠올라 나타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통하여 기하의 원리를 알게 된 소년은 기하를 이해한 자아를 형성하듯, 읽기 주체가 책을 읽고 대상의 이치를 이해하면 그 이치를 이해한 자아가 형성되어 의식에 나타나게 된다. 읽기 주체가 책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의식에 자아도 함께 나타난다. 책을 읽고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의 이치를 이해한 자아가 형성되어 의식에 표상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책에서 우주의 질서를 깨치면 그것과 관계된 자아가 표상되고, 이야기 책 속의 인물 행동을 이해하면 또 그와 관련된 자아를 의식할 수 있다. 읽기 주체는 이 자아를 의식에서 붙잡고 규명하여 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의 발현은 자아를 인식하고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 읽기 주체의 의식에 떠오른 자아를 메타적으로 살피고, 분석하여 속성을 파악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자아 발현은 읽기 주체가 자아의 속성뿐만 아니라 역할

과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자아를 밝히는 것은 관련된 이치나 관념을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그 내적 속성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읽기 주체가 「도덕경」의 무위의 관념을 파악하면서 의식에 떠오른 자아를 보면, 유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아집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읽기 주체는 자아가 가진 이런 특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아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읽기 주체는 책의 관념에 기대어 자아의 변화 방향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무위를 지향하는 자아를 갖겠다는 의식을 갖는다. 그러고는 무위적 자아의 특성을 따지고 찾아서 정의하여 수용함으로써 새 자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이 자아의 발현이다. 이 자아의 발현은 전성(轉成)과 형성(形成)의 두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성은 기존 자아를 대상의 장점을 받아 들여 수정하는 것이고, 형성은 없었던 자아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읽기 주체가 책의 관념과 비슷한 자아를 느끼게 되면 그 관념을 바탕으로 자아를 변화시키고, 낯선 관념을 인식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자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

자아 확립은 읽기 주체가 자아에 대한 성찰로 그 내적 속성과 가능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자아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고 확립된다. 자아 확립의 기제가 성찰인 것이다. 성찰은 발현된 자아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내적 속성을 가감하여 보완하고 그 역할과 기능성의 범위를 넓히고 분명하게 밝히는 활동이다. 자아 성찰의 활동은 읽기 주체가 터득한 이치나 구성한 관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읽기 주체는 이치나 관념에서 자아의 속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아를 변화시킬 요소를 선택한다. 이 요소를 이용하여 읽기 주체는 자아를 새롭게 규명하고, 자아의 역할과 기능성도 새롭게 각성하게 된다. 자아 성찰의 과정은 이치나 관념에 비추어 자아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덜어 내고, 채우는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아가 확립된다. 주체가 자아를 확립하지 않으면 삶에서 존재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삶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의 활동은 주체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확립된 자아는 주체가 대상

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실체화된다. 읽기 주체는 확립한 자아와 확대된 안목을 바탕으로 통찰하여 온관념을 구성한다. 온관념을 대표하는 주체가 일을 함으로써 온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온삶은 주체의 의지의 실현으로 이루어진다. 온관념만 구성한다고 하여 온삶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온관념을 구성하면서 무위의 실천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실체화는 관념에 따라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4. 온관념의 구성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온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관념이다. 온관념은 대상에 대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결합하여 읽기 주체가 구성한다. 온관념은 온전한 관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온전하다는 것은 자아와 이치의 결합, 앎과 삶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지와 무위를 통한 자연스러움의 지향을 함의한다. 그렇다고 온관념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늘 변화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노자가 변화하는 것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온관념은 무지와 무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무지는 그릇된 생각을 털어 내는 것이고, 무위는 일이 어렵지 않을 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릇된 생각을 털어 내거나 일이 어렵지 않을 때 한다는 말은 올바른 앎을 이루고, 알맞은 시기에 일을 쉽게 함을 의미한다. 올바른 앎이라는 것은 읽는 대상의 이치를 이해함을 의미하고, 알맞은 시기에 일을 함은 앎을 바탕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일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제대로 실천함을 뜻한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읽기를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밝혀 삶과 관련된 관념을 구성한 것이다.

온관념의 속성은 조화이다. 온관념은 절대성을 갖지 않기에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하는 관념이다. 이는 대상과 자아의 조화이며, 세상과 자아의 조화를 의미한다. 독자가 책을 통하여 대상을 파악하고, 자아를 확립하여

온관념을 구성하기에 그 관념은 대상과 자아의 조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온관념의 조화성은 독단적이거나 고립적인 생각을 벗어나 있기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념이다. 그러면서도 대상과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관념이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이중적으로 구성하는 관념이다. 읽기 주체가 관념을 구성할 때는 일차적으로 책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는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여 관념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일차적 관념은 대상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구성된 관념이다. 이 관념은 확립된 자아와 연합하여 읽기 주체가 주도하는 관념으로 재구성된다. 읽기 주체는 책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난 후 그 이해의 내용을 확립된 자아의 입장에서 살피게 된다. 이때 읽기 주체는 자아의 관점에서 이차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독자는 대상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확립된 자아를 결합하여 온관념을 구성한다. 읽기 주체가 구성한 온관념은 책을 따른 것이지만 자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는 다른 관념이다. 책의 내용과 자아를 연결하여 읽기 주체가 구성한 온관념은 주체의 것이 되고, 주체가 주도하는 관념이 된다. 예컨대, 「도덕경」의 내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도덕경」주체들이 구성한 관념을 달라진다. 각 읽기 주체들은 확립한 자아로 「도덕경」에 대한 관념을 정치, 교육, 군사, 수양, 은둔 등의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소통한다.

읽기 주체와 온관념의 결합이 독자의 무주관을 이룬다. 온관념은 무위를 지향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무주관은 읽기 주체가 무위적 삶의 지향성을 드러낸 주관이다. 삶은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지로 무위의 삶으로 실현하려는 지향성을 갖는 주관인 것이다. 무위의 핵심은 일을 잘하는 것이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가치 있고 만족한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관은 무주관인 것이다. 독자는 무주관을 구성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확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읽기 교육은 온관념 구성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온관념을 구성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읽기의 접근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책을 이해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비우는 것이고, 그릇된 욕망에 집착하

고 있는 자아를 덜어 내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읽기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비우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한 복수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다. 그 읽기의 과정에서 안목을 확장하고, 자아를 확립해 내어야 한다. 읽기 주체는 안목과 자아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온관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IV. 결론

읽기 교육은 읽기를 왜 하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읽기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제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읽기 교육이 읽기 능력 신장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된 읽기 능력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하지 못했다.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를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한 후 학생들에게 읽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온삶을 위한 읽기 여러 읽기 목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온관념을 구성하기 위한 읽기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노자 「도덕경」의 인식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자는 대상과 인식자를 구분하고, 인식자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 논의에서는 노자의 인식 논리를 읽기에 적용하여, 읽기 주체가 글을 읽고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안목을 확대하고, 자아를 확립하여 온관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온관념의 구성이 무위자연적 온삶의 토대가 된다고 보고, 읽기 주체는 글을 읽고 온관념을 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대상의 이치 터득으로 갖게 된 확장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념이다. 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책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아를 반영한 관념은 늘 새롭게 변화한다. 그래서 구성된 관념은 읽기 주체의 삶과 깊이 관련된다. 온관념은 무위자연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관념이므로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한

다. 세상과 화합하여 자아의 변화를 이루고 세상과 자연스런 관계를 유지하여 삶을 알차게 한다.

온관념의 구성을 강조하는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읽기 주체가 대상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는 읽기와 확립된 자아를 토대로 관념을 구성하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읽기 교육이 읽기 능력의 신장을 넘어 온삶을 추구하는 읽기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읽기를 해야 하는 하나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온삶을 위한 무위적 관념 구성을 위한 읽기 교육을 위해서는 이 논의의 관점을 확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도남(2008), “읽기주체 형성의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3집.
- 김용욱(1999), 『노자와 21세기』 1~3, 통나무.
- 김현덕(2010), 『노자, 도덕경을 해설하다』, 청정사.
- 김형효(2004),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 박상환 외(2011), 『노자, 문화 콘텐츠를 만나다』, 도서출판 상.
- 송찬우 역(2000), 『노자—그 불교적 이해』, 세계사.
- 이석명 역(2007),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 소명출판.
-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 이홍우(2010), 『교육과정 탐구』, 박영사.
- 이홍우·임병덕 역(2003), 『키에르케고르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 임병덕(1995), 『교육방법으로서의 간접전달』, 교육과학사.
- 임채우 역(2008), 『왕필의 노자』, 한길사.
- 장희익(2001), 『삶과 온생명』, 솔출판사.
- 조민환·장원목·김경수 역(2008), 『도덕지귀』, 예문서원.
- 최재묵·박종연 역(2008), 『진고옹이 풀이한 노자』,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진석(2002),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초록>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 교육 방향 탐색
-노자 「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김도남

온삶은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여 자아를 확립함으로써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사는 삶이다. 읽기 교육은 학생들이 온삶을 지향하는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의 온삶을 위한 읽기 관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타난 인식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앎을 통하여 조화롭고 가치 있는 무위적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 독자가 책을 읽는 것도 앎을 통하여 조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독자가 온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관념을 구성해야 한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세상의 이치를 터득함으로써 얻은 확장된 안목과 확립된 자아를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 온관념은 읽기 주체가 세상의 이치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삶의 가치와 만족감을 높이는 토대이다. 삶의 가치와 만족감은 다른 대상의 삶을 그 목적대로 이루어 주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조화로우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 온관념은 글을 새롭게 해석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변화시킴으로써 구성한다. 이는 읽기 주체의 온삶이 글을 읽고 자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온삶을 위한 읽기는 읽기 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읽기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온삶을 위한 읽기 관점을 이해시키고, 글을 읽어 대상에 대한 안목을 터득하고, 자아를 확립하여 온관념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온관념을 구성하기 위한 읽기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읽기 교육은 더 한층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읽기 교육에서 온삶을 위한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를 계기로 세부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핵심어】 읽기 교육, 읽기 주체, 자아 확립, 도덕경, 무위

<Abstract>

A Research of Reading Instruction for the Reader's Intact Life

Kim, Do-nam

This study tried to re-conceptualize and broaden reading education by focusing on Laozi(老子)'s Tao Te ching(道德經). Laozi explains how to acquire knowledge and how to live happily. The way of knowledge acquirement gets rid one's own selfishness and the way of happy life removes the avarice. So people realize the Wuwei(無爲). The Wuwei is to work easily by know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job and by treated in its early stages.

From the Laozi point of view, reading will serve as a he footing for the life of Wuwei. The reader goes into the principles of thing by reading book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he constructs the idea for the working easy. The constructed idea by reader for Wuwei is called 'intact idea', which is bases on 'intact life'.

In the reading education gives support to student to construct the idea for 'intact life'. In order to help student for reading, the first, make students understand a viewpoint of reading for Wuwei. the second, do educate students to the discerning eye for study the principles of thing by reading. the third, put students to establish the their's self by introspect. At the end, get students to work do construct intact idea for intact life. The reading instruction for intact life is in need of the several research on reading for Wuwei.

【Key words】 Reading Education, The Reading Subject, Self-establishment, Tao Te ching(道德經), Wuwei(無爲)